

“에너지 자립도시 전환...글로벌 녹색도시 도약”

녹색성장위 토론회 ‘그린뉴딜 선도도시’ 사례 발표 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그린에너지 ESS’ 경험 공유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무총리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사례를 발표하며 광주가 전국적 그린뉴딜 선도 도시로 인정받았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정욱 녹색위원장, 조병래 환경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용섭 광주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등 그린뉴딜 선도 자치단체장, 이명주 녹색위원(토론회 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유진 녹색위원은 기초발제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 시장 등 자치단체장이 사례발표

를 마친 뒤, 전문가와 함께 지방정부가 그린뉴딜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광주형 3대 뉴딜’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광주의 강점인 인공지능과 연계한 그린뉴딜의 특징과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도시” 전환을 위해 녹색전환도, 녹색산업도시, 기후안심도시의 3대 전략을 제시하고, “2045 탄소중립 추진위원회” 등 시민중심의 이행체제와 2045년까지 이산화탄소 823만6,000t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13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이 큰 주목을 받았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12월부터 2024년까지 북구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공개토론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김정욱 녹색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녹색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첨단산업단지 구역 2.5km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모집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저장장치(ESS)에 충·방전해 판매하는 전력거래 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광주가 중앙집권적 전력거래시스템에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활성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유튜브를 통한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시청자 질의도 이어졌다. 시청자들은 인공지능과 그린뉴딜을 연계한 광주의 발전이 신선하고 훌륭한 전략이라는 의견을 보이

며, 특히 광주에 조성될 세계 10위권 ‘인공지능 특화 데이터센터’에 대해 질의하는 등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토론회에서 “광주가 AI-그린 뉴딜을 통해 에너지 중속도시에서 자립도

시로 대전환을 이루게 된다”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실현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애란 기자

광주도시공사 ‘착한 임대료’ 연장·확대

“서민·자영업자, 실질적 부담경감 이어지길”

광주도시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시행했던 임대료 인하기간을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주택 9개 단지 임대료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9개 단지 7,526세대는 세대당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고, 임대주택 상가 40호는 월 임대료 50% 인하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 취약계층인 영구·국민·공공임

대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임대료 인하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 환파를 극복하기엔 부족하겠지만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에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중국 동북3성 공략’ 시장개척단 화상상담

도, 27개 기업 창춘·선양·웨이하이 바이어와 연결

전남도는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중국 동북지역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 “2020 전남도 2차 중국 언택트 시장개척단” 화상상담에 나섰다

23일 밝혔다. 전남도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가 함께한 이번 2차 언택트 시장개척단은 중국 지린성 창춘·랴오닝성 선양·산둥성 웨이하이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 활동이 어려운 도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화상상담은 오는 23·24일 중국

선양을 시작으로, 25일 웨이하이, 26·27일 장춘 등 순으로 총 5일간 진행된다.

이번 화상상담에 참가한 도내 수출기업은 식품기업 14개, 화장품기업 10개, 기타 3개 기업으로 총 27개 기업이 참가한다.

온라인 화상상담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수출기업과 중국 현지 바이어에 대한 매칭을 마쳤으며, 수출제품 정보제공 샘플을 중국 측 바이어에게 미리

발송했다. 특히 상담 후에도 참여 수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추가마케팅 연결, 바이어 초청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화상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성과를 분석해 내년 시장개척단 운영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제공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라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민들은 이 시스템의 환경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시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발령 상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와 팩스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전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 누리집(air.jih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도시대기측정소는 도시지역의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와 6개 대기오염물질, 기상자료를 상시 관측하는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의 하나다. 전국 총 463개소가 있으며,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38개소를 운영 중이다.

전남도대기질정보시스템은 도내 모든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누리집이다. 지난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구축해 도민들에게 환경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길용현 기자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1면에서 계속

원도급업체와 협력사는 계획된 휴설계량 부족분 3만5,839㎡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지에서 최단거리인 왕복 8km 내외의 도덕면 용동리 한적마을에 3도취장을 마련했지만, 토취장 사용을 위한 신청서류조차 고농군에 내지 못하고 있다.

협력사 관계자는 “3도취장이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체 흙을 소화하고 남은 양을 보유하고 있고, 거리가 가까워 여러 장점이 있다”면서 “고농군에서 소유자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1도취장 흙 값 문제 해결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게 하는 갑질행정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또 “2도취장 소유자가 각종 장비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농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군수 측 근들을 챙기기 위한 핑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반조성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각종 사업들이 이권과 특혜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농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1도취장은 소유자가 사용 동의를 철회했고, 3도취장의 경우 신청지에 위치한 등산로 우회 등 문제해결을 발주처인 농어촌공사에 요청했다”며 “업체 측에서 지금이라도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송 군수 측근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시, 겨울철 자연재난 총력대응 돌입

내년 3월까지 폭설·한파 등 재난대책기간 운영

광주시는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기간 폭설·한파 등 기상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예방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사전대비태세 점검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건설기계협회, 열관리시공협회, 한전, KT, 503여단, 경찰청, 교육

청 등 지역 내 민·관·군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제설 인력·장비·자재 확보 등 협력체계 구축과 재난대비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응급복구 지원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올겨울도 지난해와 상황이 비슷하지만 폭설과 도로 결빙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대비해야 한다”며 “상승 결빙구간에 대한 재설작업과 함께 녹은 눈이 얼어붙어 얇은 얼음층을 생성하는 블랙아이스 구간에 대해 반드시 재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집행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20 / 010-3138-9972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전남매일 언론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회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